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序詩

1941.11.20

死ぬ日まで天を仰ぎ  
一点の恥なきことを、  
木の葉に起こる風にも  
わたしは苦しんだ。  
星をうたう心で  
すべての死んでゆくものを愛さなければ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  
歩みゆかねば。  
  
今夜も 星が 風にさらされる。

##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自画像

1939.9

山の麓をめぐって 田んぼのそば ぼつんとある井戸を ひとり尋ねて行って  
は、そっとのぞいて見ます。

井戸の中には、月が明るく、雲が流れ、空（天）が広がり、真っ青な風が  
吹き、秋があります。

そして ひとりの男がいます。

なぜかその男が憎らしくなって、帰って行きます。

帰ってから考えると、その男がかawaiiそうになります。  
もう一度行ってのぞいてみると、男はそのままいます。

またその男が憎らしくなって、帰って行きます。

帰ってから考えると、その男がいとおしくなります。

井戸の中には、月が明るく、雲が流れ、空（天）が広がり、真っ青な風が  
吹き、秋があり、追憶のように 男がいます。

코스모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라미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코스모스

1938.9.20

清楚なコスモスは  
ただひとりのわたしの少女、

月の光が冷たく寒い夜になれば  
昔の少女がたまらなく恋しく  
コスモスの咲いた庭へ たずねてゆく。

コスモスは  
こおろぎの鳴く声にもはじらい、

コスモスの前に立ったわたしは  
幼いころのようにはずかしくなって、

わたしの心は コスモスのところ  
コスモスの心は わたしのところだ。

##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十字架

1941.5.31

追いかけてきた日の光が  
いま 教会堂の尖端  
十字架にかかりました。

尖塔があれほど高いのに  
どうして登ってゆけるでしょうか。

鐘の音も聞こえてこず  
口笛でも吹きつつ さまよい歩いて、

苦しんだ男、  
幸福なイエス・キリストにとって  
そうだったように  
十字架が許されるのなら

首を垂れ  
花のように咲きだす血を  
暗くなってゆく天の下に  
静かに流しましょう。

## 흰 그림자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에서  
하로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소리,

발자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든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든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 고향으로 돌려 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든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으젓한 양처럼  
하로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 白い影

1942.4.14

黄昏が濃くなってゆく街角で  
一日中、疲れた耳を静かに傾ければ  
夕闇の、移される足跡の音

足跡の音を聴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  
私は聡明だったのでしょうか。

いま愚かにもすべてのことを悟った次に  
長く心の奥深くに  
苦しんでいた多くの私を  
ひとつ、ふたつ、私のふるさとへ送り返せば  
街角の闇の中へ  
音もなく消えゆく白い影、

白い影たち  
ずっと愛していた白い影たち、

私のすべてのものを送り返した後  
うつろに裏通りをめぐり  
黄昏のように色づく私の部屋へ帰ってくれば

信念の深い堂々たる羊のように  
一日中憂いなく草でもはもう。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같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新しい道

1938.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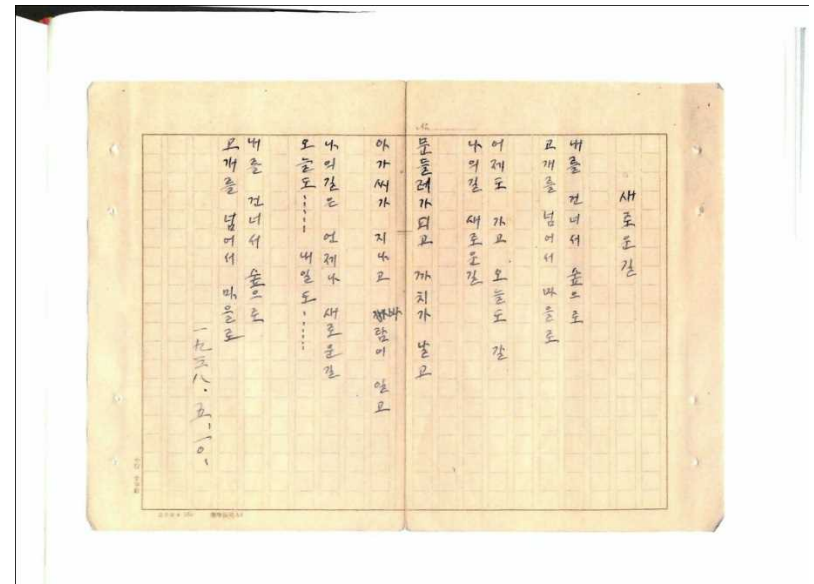
川をわたって森へ  
峠を越えて村へ

昨日も行き、今日も行く  
わたしの道、新しい道

タンポポが咲き、かきさぎが飛び  
娘が通り、風が起こり

わたしの道はいつも新しい道  
今日も……明日も……

川をわたって森へ  
峠を越えて村へ





同志社大学今出川キャンパスにある尹東柱詩碑